

## 국가정체성이 일본의 지속가능한발전(SDGs) 관련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

김 미 영\*\*

### • 요 약 •

본 연구는 일본의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이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 결정 및 국제사회에서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일본의 역사적 경험과 정치·사회적 맥락이 국가정체성 형성에 미친 영향을 조명하며, 이것이 일본이 SDGs에 접근하는 방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검토한다. 또한 일본이 SDGs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요 요인을 밝히고, 이를 통해 일본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동력을 분석한다.

일본은 2016년 SDGs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전방위적으로 SDGs를 추진해왔다. 2023년 SDGs 보고서에서 일본은 아시아에서 높은 달성도를 보였으나, 일부 목표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도전이 남아있다. 일본의 SDGs 접근은 과거 아시아주의와 평화주의의 현대적 재해석으로, 국제사회에서 중심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반영한다. 일본 정부는 SDGs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재확인하고 긍정적인 국제 이미지를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SDGs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존재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내실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 과제로서, 국외 요인을 포함하여 일본의 국가정체성과 국제 정책 결정 간의 상호 작용을 더욱 포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각 국가의 접근 방식이 내외적 요인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주제어 : SDGs, 일본정치, 국가정체성, 아시아주의, 평화주의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NRF-2022S1A5C2A03092455).

\*\*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연구교수

## I. 서론

본 연구는 일본의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sup>1)</sup>이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 결정 및 국제사회에서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일본의 역사적 경험과 정치·사회적 맥락이 국가정체성 형성에 미친 영향을 조명하며, 이것이 일본이 SDGs에 접근하는 방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검토한다. 또한 일본이 SDGs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요 요인을 밝히고, 이를 통해 일본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동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SDGs는 세계 각국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17가지 광범위한 목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목표들은 기존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 MDGs)를 대체하며, 국제 사회의 발전을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포함하고 있다. 각국은 이 목표를 자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매년 유엔의 고위급 정치포럼(the United Nations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HLPF)에 자발적 국가보고서(the Voluntary National Reviews, VNR)를 통해 이행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기후 환경 위기, 빈곤, 분쟁 등 전 세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인류에게 SDGs의 의미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일본은 SDGs의 채택 초기부터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일본은 SDGs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이듬해인 2016년 5월에 우선 국내 기반 마련을 위해 SDGs 추진본부를 설치하였다. 이 본부 산하에 SDGs 추진 원탁회의를 설치하고, 행정부, 민간 기업, NGO·NPO, 학자, 국제기관, 각종 단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어서 같은 해 12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관한 시책 실시에 대해 관계행정기관 간 긴밀한 연계를 도모하고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SDGs 액션플랜」을 수립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는 VNR을 2017년 7월과 2021년에 작성하였다.

일본 정부의 SDGs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대응은 교육 현장, 기업,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확대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포괄적이고 공정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평생 학습의 기회를

---

1) 국가정체성이라는 용어의 원어는 ‘national identity’로 국내 학계에서는 국민 정체성이라고도 번역 및 사용된다. 최근에는 원어 발음 그대로 ‘내셔널 아이덴티티’로 사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정부의 정책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국가정체성’으로 번역해서 쓰되, 본문 내 관련 용어에 대한 개념 설명 등이 필요할 때는 본 각주에서 제시한 단어들을 혼용하여 사용한다.

증진한다’는 목표 아래 초등교육부터 대학 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 체계 전반에 걸쳐 SDGs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SDGs를 키워드로 한 수업 시간을 마련하고 장애 교육을 비롯하여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민간 기업들의 SDGs 대응은 각 기업의 현재 상황을 기반으로, 경영 자원을 활용하여 SDGs를 실행하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sup>2)</sup> 이 접근법은 기업별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각 기업은 자신들의 목표와 자원에 맞추어 SDGs를 자사의 비즈니스 전략에 통합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생산 제품과 SDGs를 연계하여 소비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소비를 장려하고,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어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2023년 6월에 공개된 SDGs 보고서(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에 따르면, 일본은 전 세계에서 21위를 차지하며 아시아에서 SDGs 달성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는 일본의 정책 결정자들과 연구기관, 민간 부문,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한 결과이다. 하지만 2016년부터 2023년 기간 동안 일본의 평균 순위는 16.75위, 평균 점수는 78.81점으로, 순위가 처음으로 2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2023년에 달성도가 적색(주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것은 목표 5(성평등), 목표 12(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목표 13(기후 변화 대응), 목표 14(해양 보호), 목표 15(육지 생태계 보호)로, 특히 국내 환경 보호와 성평등 관련 목표에서의 도전이 크게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진척 속도가 뛰어난 국가가 반드시 SDGs 달성을 선도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일부 국가는 매우 낮은 기준에서 큰 진전을 보인 반면, 목표 달성에 가까워질수록 진척이 느려지는 경우도 있다.<sup>3)</sup>

일본의 SDGs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우선 일본 정부가 국내적으로 일정 수준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하면서, 빈곤, 기아와 같은 국제적인 목표에 중점을 두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sup>4)</sup> 2016년 10월에 발표한 「SDGs 실시지침(SDGs Implementation Guiding Principles)」에서 ‘세계의 롤 모델’이 될 것을 천명하며, ODA를 통한 개발도상국에의 지원 및 국제사회 전체의 번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헌해왔음을 밝히고 있다.<sup>5)</sup> 그리고 일본의 SDGs 접근 방식이 어떻게 국가의 역사적 및 문화적 맥락에

2) 미무라 미쓰히로, “동북아 SDGs 협력을 위한 일본의 과제”, 『국토』 2023년 4월호(통권 제498호), 2023, p.22.

3)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ESCAP), 『ASIA AND THE PACIFICSDG PROGRESS REPORT Championing sustainability despite adversities 2023』, p.17. ESCAP 홈페이지 <https://repository.unescap.org/bitstream/handle/20.500.12870/5279/ESCAP-2023-FS-SDG-Progress-Report.pdf>(검색일: 2023.12.1).

4) 김지현, “한일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추진체제와 상호협력방안”, 『일어일문학』 제87집, 2020, p.252.

5) 「SDGs実施指針骨子」(온라인) 일본 수상관저(首相官邸)홈페이지 <https://www.kantei.go.jp/jp/singi/sdgs/p>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탐구함으로써, 국가정체성이 국가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SDGs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이러한 정책 접근 방식이 일본의 국가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특히 역사적 경험이 이러한 정체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일본의 역사적 경험, 특히 제국주의와 전후 재건 기간 동안의 경험은 국가정체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정체성은 국제무대에서의 일본의 역할과 자세에 깊게 반영되어 있다. 이에 2장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와 전후 재건 기간 동안 일본의 국가정체성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탐구한다. 역사적 사건들이 현재의 국가정체성에 끼친 영향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SDGs에 접근하는 일본의 방식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검토한다. 3장에서는 일본이 SDGs의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4장에서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국가정체성을 어떻게 SDGs 추진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국내 요인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일본의 SDGs 참여에 대한 동기와 배경을 설명한다.

## II. 일본의 국가정체성과 역사적 변화

국가정체성은 정치공동체에서의 국민적 일체감 내지 동일의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에스닉 아이덴티티(ethnic identity)<sup>6)</sup>와 구분된다. 아이덴티티는 일반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동일성(sameness)’ 및 ‘일정 기간을 넘어서도 특정 형태가 유지되는 지속성(persistence)’을 의미한다.<sup>7)</sup> 개인 혹은 집단이 각각의 아이덴티티를 갖기 위해서는 어느 한 가지 속성에 대한 동일화 및 타자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내셔널 아이덴티티는 구성원 사이에서 공유되는 문화를 바탕으로 한 상호인식이자,<sup>8)</sup> 집단에 대한 애착의 형태로 이해할 수도 있다.<sup>9)</sup> 내셔널 아이덴티티는 ‘국가의 불분명한 권위, 즉 모호성과 불확실성에 직

---

df/jisshi\_shishin\_r011108.pdf(검색일: 2023.11.5).

6) 내셔널 아이덴티티(national identity)와 에스닉 아이덴티티(ethnic identity) 모두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민족적 아이덴티티’로 쓰이기도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발음되는 그대로 사용한다.

7) Anthony D. Smith, NATIONALISM -Theory, Ideology, History, Second Edition, Polity Press, 2010, p.30.

8) Ernest Gellner, Nations and nationalism. Basil Blackwell, 1983, p.7.

9) Noah Lewin-Epstein·Asaf Levanon, “National Identity and Xenophobia in an Ethnically Divided

면하여 누가 속하고, 누가 속하지 않는지에 대한 고정되고 안정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하나의 네이션에 속한 자들로 하여금 내부와 외부를 구별하는 능력을 선사한다.<sup>10)</sup> 하지만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변화하는 세계에서 실제의 역사적 시공간에서 형성되며, 사회화 과정을 통해 특정 집단 내에서 세대 사이에 전달되어 온 독특한 문화와 정치 규범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sup>11)</sup> 이처럼 국가정체성은 국가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국민 간의 일체감을 강화하고 정치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데 기여한다.

한 국가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그 국가가 자신의 이익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대해 좀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sup>12)</sup> 구성주의자들은 국가정체성이 규범을 통해 형성되고, 이러한 규범들이 국가의 이익을 정의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sup>13)</sup> 구성주의(constructivism)는 국제정치적 상황을 고정된 사실로 보지 않고 행위자와 구조의 상호 작용을 통해 구성되고 재구성되는 것으로 파악한다.<sup>14)</sup> 이 이론은 국가들의 행동이 물리적 현실이나 경제적 이익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 문화적 가치, 그리고 상호 간의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국제 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이 이러한 상호 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이를 통해 국제 정치의 변동성과 역사적, 문화적 요인들이 국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정체성, 규범, 이념 등 비물질적 요소가 국가 행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탐구한다.

구성주의 이론에 따라, 국가정체성이 변화하는 과정은 국제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특히 일본의 근대화 경험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일본이 쇄국 정책을 폐기하고 서구의 기술과 사상을 채택하기 시작한 메이지 유신은 단순히 기술적 혹은 경제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정체성의 재구성 과정의 일부였다. 이 과정에서 서양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은 일본이 자신을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위치시킬지를 재정의하는 계기를

---

Society”, International Journal on Multicultural Societies (IJMS), Vol. 7, No. 2, 2005, p.95.

10) Roxanne L. Doty, “Sovereignty and the Nation: Constructing the Boundaries of National Identity”, Biersteker, Thomas J. and Cynthia Weber(eds), State Sovereignty as Social Construct, Cambridge University Press,1996, p.122.

11) Bloom, William. Personal Identity, national identit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Suny, Ronald G, “Provisional Stabilities: The Politics of Identities in Post-Soviet Eurasia.” International Security Winter 1999/2000 24(3), pp.139-178.

12) Bukovansky, M., “Identity and Agency in the International System.” E. Le and W. Kim, eds. Recasting International Relations Paradigms. Seoul: KAIS, 1996. pp.248-250, 신옥희,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의미와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32집 2호, 1995. p.155에서 재인용.

13) 정일준, “한미관계의역사사학회: 국제관계, 국가정체성, 국가프로젝트”, 『사회와역사』 제84집. 2009.

14) 신옥희, 1998, p.148.

마련하였다.

일본의 근대는 ‘서양 충격’으로 시작되었다. 일본은 18세기 말부터 강력한 쇄국 정책을 펼쳐왔으나 1853년 페리 제독의 내항으로 인한 외부 압력으로 국제사회에 문을 열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급진적인 근대화를 추진하며 쇄국 정책을 폐기하고 서구의 기술과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1854년 미일화친 조약(美日和親條約)을 통해 사실상 강제로 개국한 일본은 이후 1858년 일본 최초의 불평등 조약인 미일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을 시작으로 일본은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 프랑스 등과도 잇달아 조약을 체결하며 국제관계의 문을 활짝 열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에도시대 중기 이후 네덜란드를 통해 전파되기 시작한 난학(蘭學)을 계기로 서양 학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었다. 서양의 근대 의학 및 과학 지식 등의 보급을 비롯해 페리 제독 내항 당시 승선했던 ‘흑선’의 위상은 더 이상 쇄국 정책을 유지할 수 없음을 일본 사회에 각인 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이 국가적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국제 관계의 재편과 함께 근대적 국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서구의 과학적, 산업적 진보를 모델로 삼아 군사와 경제의 현대화에 집중하였다. 메이지 유신 후, 일본은 신속하게 국가 시스템을 중앙집권화하고 근대적 법체계와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국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하였다. 이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서구 열강과 나란히 할 수 있는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사상적으로 서양과 아시아를 문명과 야만의 대결 구도에 넣고 일본은 아시아의 ‘서양’이자 유일한 근대국가로 위치 지음으로써 아시아 일등 국가로서의 국가정체성을 정립해 나갔다. 메이지 유신 이후 서구 열강의 협력적 제국주의에 대한 반응으로 형성된 아시아주의는 일본의 외교정책을 비판하고 일본을 아시아의 리더로 위치시킴으로써 아시아 국가들의 연대를 촉진하고 서구에 대항하려는 사상적 전략으로서, 이는 근대 일본의 정치 역사를 관통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였다.<sup>15)</sup>

19세기 후반에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아시아주의는, 일본을 아시아의 리더로 자리매김하려는 국가정체성의 일환으로 발전하였다. 이 사상은 일본이 서구의 제국주의에 맞서 아시아 국가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에 기반을 두었다.<sup>16)</sup> 일본은 이를 통해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을 근대화의 모범으로 삼고, 아시아 전체의 선도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15) E. H. Norman “The Genyosha: A Study in the Origins of Japanese Imperialism,” Pacific Affairs, Vol. 17, No. 3, September 1944, pp.264-284.

16) 김남은, “근대 일본과 아시아주의-탈아(脫亞)와 입아(入亞)를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제44집, 2016, p.101.

확립하고자 하였다. 청일전쟁(1894) 및 러일전쟁(1904)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 아시아주의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확장과 군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제공했으며, 일본의 대외 정책과 국내 정책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사상은 이후 중국에서의 다른 서양 제국 국가와의 경쟁 및 태평양전쟁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으며,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역할과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아시아주의는 아시아의 다른 민족과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서양의 적극적인 아시아 진출로 인해 위기를 느낀 아시아 각국은 지역적,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연대를 모색하면서도, 서양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그들의 선진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sup>17)</sup> 이와 같은 상황에 형성된 아시아주의는 아시아의 통합을 추진하며, 서양의 부와 강함을 향후에 달성하고자 하는 추종적 노선을 포함한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 내에서의 연대는 논리적으로나 실제로 대등한 관계가 필수적이었지만<sup>18)</sup>, 일본은 자신을 제외한 주변 국가들을 상대적으로 미개한 지역으로 간주하고, 자신을 아시아의 리더로 위치시키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아시아 각국이 서양의 선진 기술과 부를 도입하여 자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추구하고 맞물려, 아시아주의 내에서도 각국의 독자성과 독립적 발전을 지향하는 움직임과 상충되었다. 결과적으로, 일본이 주도한 아시아주의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진정한 대등한 관계 구축보다는 일본 중심의 지역적 질서를 확립하려는 논리로 해석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본 중심의 아시아주의는 일본이 서양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동시에 아시아 내에서도 우위를 점하려는 이중적 전략의 일환으로 작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일본의 군사적 확장과 강압적인 외교 정책은 중일전쟁(1937)과 태평양전쟁(1939)으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도 큰 갈등과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일본이 아시아에서 서구식 근대화 모델을 수용하여 부국강병을 이루고자 한 아시아주의 전략이 아시아 내에서는 팽창주의로, 서구와의 관계에서는 대립적으로 전개되었음을 보여준다. 일본의 아시아주의가 아시아의 동맹과 연대를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일본 중심의 패권을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이는 궁극적으로 아시아 국가들 사이, 그리고 서구 국가들과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일본의 팽창주의 정책은 결국 중일전쟁을 통해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나아가 태평양

17) 藤井昇三, “孫文の民族主義再論—アジア主義を中心に”, 『歴史評論』 第549号, 1996, 채수도, “근대 일본의 ‘아시아주의 운동’—일본 아시아주의자와 「중국문제」를 중심으로”, 대구사학학회 『대구사학』 Nov 30, 2005, p.81에서 재인용. 狭間直樹, “初期アジア主義についての史的考察(1)—序章 아시아主義とはなにか”, 『東亜』 410, 2001, pp.69-70.

18) 狭間直樹, 2001, p.70.

지역의 주요 전략 지점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서구 국가들, 특히 미국과의 긴장을 고조시켜 1941년 진주만 공습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참전을 초래하였고, 이는 태평양 전쟁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결국 일본의 패전으로 마무리되었다.

전후 일본의 국가정체성은 미국 주도의 국가 재건 과정에서 ‘평화주의’와 ‘민주주의’가 핵심적 가치로 재정립되었다. 이는 1947년 새로운 헌법의 제정을 통해 공식화되었으며, 특히 군사력 보유 금지와 평화적 국제 협력을 강조하는 헌법 제9조에 잘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에서 전혀 다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부여하였으며, 이전의 군국주의적이고 팽창주의적인 정체성에서 벗어나 평화를 중시하는 국가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더불어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서 형성된 서구 세력에 대한 열등감과 부정적 정체성은 전후 일본이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1960대를 전후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sup>19)</sup>

이러한 변환으로 냉전 구도 하에서 일본이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새로운 위치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1950년에 발생한 한국 전쟁의 반사이익으로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면서 1960년대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1956년 발행된 『경제백서』에는 “더 이상 ‘전후’가 아니다”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이는 ‘55년 체제’와 ‘고도 경제 성장’을 상징으로 삼아 일본이 주도하는 새로운 ‘전후’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낸다.<sup>20)</sup> 이 과정에서 서구, 특히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쟁의 폐해를 교훈 삼아 국제 분쟁 해결에서 평화적 수단을 선호하는 ‘평화국가’로서의 이미지와 경제 선진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외교정책에서 적극 활용하였다. 일본 정부 주도의 ODA가 이러한 외교적 접근법의 대표적인 예이다. 1954년 10월 콜롬보 계획(Colombo Plan) 참여를 시작으로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2020년 일본 ODA 실적 중 지역별 2개국 간 ODA 실적을 비교하면, 7개의 대상 지역 중 아시아 국가에 대한 실적이 총 60.4%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sup>21)</sup>

일본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원조를 1순위로 두고 계속해서 유지하는 이유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평화주의와 더불어 근대 일본의 국가 건설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 아시아주의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 발간된 ODA 60주년 보고서에서, 일본

19) 최은미, “일본 TTP추진의 정치경제: 일본의 국가정체성과 지역구상의 관점에서”, 『동아연구』 제37권 1호, 2018, p.196.

20)小熊英二, 『民主と愛國—戦後日本のナショナリズムと公共性』, 新曜社, 2002, pp.11-12.

21) 『2021年版開発協力白書日本の国際協力』(온라인)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gaiko/oda/shiryo/hakusyo/21\\_hakusho/honbun/b1/s2\\_1.html](https://www.mofa.go.jp/mofaj/gaiko/oda/shiryo/hakusyo/21_hakusho/honbun/b1/s2_1.html)(검색일: 2023.11.30).



은 인재 육성, 인프라 정비, 그리고 무역·투자 환경의 정비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성장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하고 있다.<sup>22)</sup> 이 보고서는 일본이 ‘평화주의 국가’로서의 외교 정책에 ODA를 적극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외교 활동이 일본의 글로벌 이미지와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1980년대 말 일본의 버블 경제가 붕괴된 이후로 장기적인 재정적자와 경제 정체 상황이 지속되면서, 일본의 ODA 예산은 1997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기준으로, 일본은 미국, 독일, 유럽연합(EU), 프랑스에 이어 ODA 총출액 세계 4위를 기록<sup>23)</sup>하며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중요한 원조 제공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협력과 국제개발을 지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전후 일본의 국가 목표 중 하나였던 ‘국제사회로의 복귀’를 달성하기 위한 첫 순서가 아시아 국가와의 신뢰회복을 통한 관계 수복이었다.<sup>24)</sup> 아라카기 미츠야(荒木光弥)에 따르면, 일본은 콜롬보 계획에 참여할 당시 빈곤한 상태였지만 세계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전후 배상을 진행하며 콜롬보 계획에 성실히 참여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더해져 1956년 국제연합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로의 완전한 복귀’를 이룰 수 있었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ODA정책을 펼친 이유 중 하나는 이 지역에 대한 전후 배상 문제와 함께 자국의 수출시장 확대 및 자원 확보를 위한 국익 추구가 포함되어 있다.<sup>25)</sup> 전후 대외 협력은 주권회복, 국제사회로의 복귀를 동반한 거의 유일한 실질적 외교 정책 수단이기도 하였다.<sup>26)</sup>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일본에 대한 신뢰가 높게 나타났다. 2014년 3월, 일본 외무성이 ASEAN 7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미얀마)의 18세 이상 성인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일본이 1위(33%)로, 2위인 미국(16%)을 크게 앞섰다.<sup>27)</sup>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버블경제로 인한 경기침체, 55년 체제의 붕괴, 그리고 냉전 종식에 따른 국내외 정치적 변화 아래에서 일본의 외교 정책, 특히 원조 중심의 정책이 더

22) 『ODA60年の成果と歩み』(온라인)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files/000051408.pdf>(검색일: 2023.11.30).

23) Global note 홈페이지 <https://www.globalnote.jp/post-10125.html>(검색일: 2024.3.1).

24) 荒木光弥, “日本のODA政策体系の過去と現在と未来”, 『国際問題』 No.637, 2014. p.1.

25) 大海渡桂子, 『日本の東南アジア援助政策 日本型 ODA の形成』,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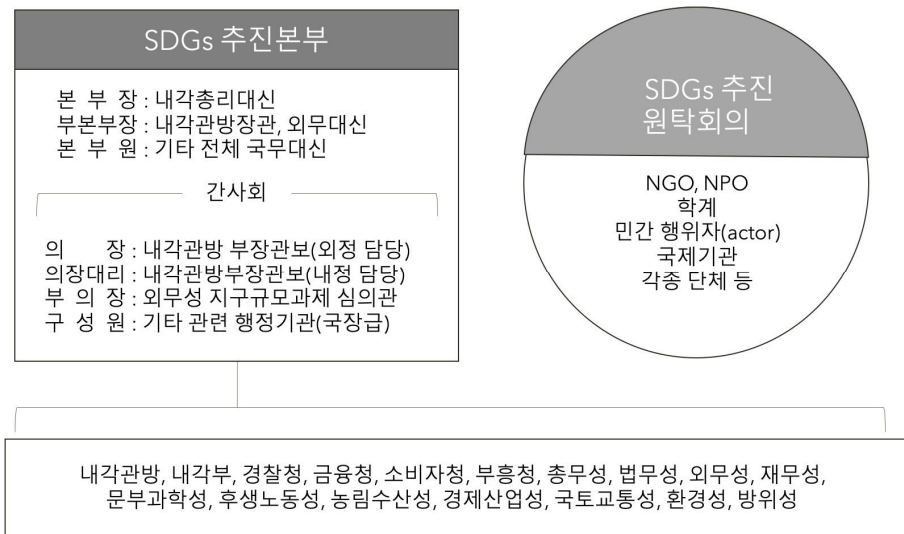
26) 北波道子, “日本型ODAの歴史から アジアのインフラ建設を考える”, 関西大学経済・政治研究所, 関西大学紀要論文, 178巻, 2023, p.108.

27) 外務省 国際協力局政策課, 2014, p.2.

욱 중요해졌다.<sup>28)</sup> 이 정책은 단순히 상대 국가의 번영과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넘어, 궁극적으로 일본의 국가 안전과 경제력이라는 국익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시기 국제사회의 협이에 의해 등장한 SDGs는 ‘원조’ 중심의 일본 외교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대내외적으로 자국의 이미지로서 아시아 일등 국가이자 평화주의 국가로서의 일본을 각인시키는 데 중요한 정책 목표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 III. SDGs 달성을 위한 일본의 전략과 실천

2015년 SDGs가 채택된 후 일본 정부는 국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6년 5월에 총리를 본부장, 관방장관과 외무대신을 부분장으로 하는 SDGs 추진본부를 설치하였다. (<그림 1>참조<sup>29)</sup>) 또한 같은 해 9월에는 행정, 민간 기업, 학계, NGO단체 등 광범위한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SDGs 추진 원탁회의를 설치하고, 「SDGs 실시지침」, 「SDGs액션플랜」, VNR을 마련하였다.



<그림 1> SDGs 추진본부 체제도

28) 星山隆, “我が国政府開発援助 (ODA) の位相 —援助の多元性と国益”, 『IIPS Policy Paper』 318J, 2006, p.1.

29)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gaiko/oda/sdgs/pdf/vnr2021\\_05\\_section.pdf](https://www.mofa.go.jp/mofaj/gaiko/oda/sdgs/pdf/vnr2021_05_section.pdf)(검색일: 2013.12.10).

일본 정부는 2016년 12월에 발표한 「SDGs 실시지침」<sup>30)</sup>에서, 국내적으로는 전후 꾸준한 경제 성장을 통해 고도로 발전된 사회를 구축하고, 국외적으로는 과거 ODA를 통해 세계 최대의 원조국으로서 SDGs의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어서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 만들기를 향한 리더로서, 과제 해결에 있어 선진국으로서 모범적인 실적을 쌓아오고 있다’고 언급하며 SDGs 달성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롤 모델이 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SDGs 달성에 일본이 적극 나서야 할 당위성을 피력하기 위해, 고도의 경제 성장과 아시아 지역에서의 높은 존재감을 통해 회복된 아시아주의적 국가정체성을 투영한 것이라 판단된다.

SDGs 추진본부는 SDGs의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하여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음의 8가지 우선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원칙 및 추진 체제를 공표하였다. 이 8개 우선 과제는 SDGs의 목표와 세부 목표 중 일본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표 1> SDGS 2030 아젠다 목표와 연계한 일본의 8개 우선 과제

		8개 우선 과제	구체적 시책
인간 (People)	1	모든 사람들의 활약 추진	- 1억 총(總) 활약 사회의 실현 - 여성 활약의 추진 - 어린이 빈곤 대책 -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가 지원 - 교육 충실
	2	건강 및 장수의 달성	- 약제 내성 대책 - 도상국 감염병 대책과 보건 시스템 강화, 공중위생 위기 대응 - 아시아 고령화에의 대응
번영 (Prosperity)	3	성장시장 창출, 지역 활성화, 과학 기술 혁신	- 유망시장의 창출 - 농어촌의 진흥 - 생산성 향상 - 과학기술 혁신
	4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높은 국토와 질 높은 인프라 정비	- 국토 복원 추진 및 방재 - 수자원개발·물 순환 대응 - 질 높은 인프라 투자 추진

30) 『持続可能な開発目標(SDGs)実施指針』(온라인),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gai-ko/oda/sdgs/pdf/000241487.pdf>(검색일: 2023.11.15).

		8개 우선 과제	구체적 시책
지구 (Planet)	5	에너지 절약·재생에너지, 기후 변화 대책, 순환형 사회	- 에너지 절약·재생 에너지 도입·국제 전개의 추진 - 기후 변화 대책 - 순환형 사회의 구축
	6	생물다양성, 삼림, 해양 등의 환경 보호	- 환경오염 대책 - 생물다양성 보전 - 지속가능한 삼림·해양·육상 자원
평화 (peace)	7	평화와 안전· 안심사회의 실현	- 조직범죄·인신매매·아동학대 등 대책 추진 - 평화 구축·부흥 지원 - 법치 사회 촉진
파트너십 (Partnership)	8	SDGs 실시추진 체제와 수단	-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파트너십 - 국제협력에 있어서 SDGs의 주류화 - 도상국의 SDGs 실시체제 지원

SDGs 추진본부는 일본 내의 관련 행정기관 간의 상호 연계를 도모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추적 역할을 맡았다. 특히, 일본 정부는 「SDGs 실시지침」에서 관련 집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표를 책정 및 조정하여 실시 지침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밝혔다. 또한,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교환과 협력을 강화하며, 관련 아젠다의 홍보 및 보급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추진본부는 2023년 12월까지 반년에 한 번꼴로 총 14회 회합을 가졌으며, 실시지침의 경우 2019년과 2023년 두 번에 걸쳐 상황에 맞게 개정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는 SDGs를 국가 발전의 중심축으로 삼아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SDGs 추진본부는 일본 정부의 다양한 부처와 연계하여 전국적 차원의 통합된 접근 방식을 취하고, 국민과 지방 정부,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포괄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Japan SDGs Action Platform’ 페이지를 따로 마련하고, 그 동안의 활동 및 SDGs 달성을 위한 분야별 대응과 관련한 기관 홈페이지 등을 링크로 제공하고 있다.(〈표 2〉 참조)<sup>31)</sup> 각 기관들은 SDGs와 관련한 활동 및 성과 등을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다.

31)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gaiko/oda/sdgs/effort/index.html>(검색일: 2024. 4.11).

〈표 2〉 외무성 홈페이지의 Japan SDGs Action Platform 세부 목록

대분류	중분류
SDGs 추진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DGs 본부(수상관저 홈페이지)</li> <li>· SDGs에 관한 자발적 국가 리뷰(VNR)</li> <li>· SDGs 실시지침 및 그 개정판(2016, 1019, 2021)</li> <li>· SDGs 추진본부회합(13회)</li> <li>· SDGs 액션플랜</li> </ul>
유엔고위급정치포럼(HL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LPE 관련 자료 (2016, 2017, 2018, 2019, 2023)</li> <li>· SDGs 서밋(2019, 2023)</li> </ul>
SDGs달성을 향한 분야별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 안전 보장</li> <li>·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에 관한 G20 행동계획에 기초한 오사카 업데이트</li> <li>· 방재 조직 · 보건 대응 · 인권 대응 · 교육 대응 · 젠더 정책</li> <li>· 기후 변화 · 환경(해양 플라스틱 쓰레기)</li> </ul>
SDGs달성을 향한 관계 성청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각부 · 금융청 · 소비자청 · 총무성 · 법무성</li> <li>· 문부과학성 · 경제산업성 · 환경성 · 방위성</li> </ul>
SDGs달성을 향한 관계 기관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JICA(일본국제협력기구) · 국제연합광고센터</li> <li>· UNICEF (일본유니세프협회) · UNDP(UN개발계획주일대표사무소)</li> <li>· 일본유네스코국내위원회 · JAXA(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li> <li>· JAMSTEC(일본해양연구개발기구) · 과학기술진흥기구</li> <li>· 경단련 · 일본청년회의소(JCI)</li> </ul>

SDGs 추진본부는 다양한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일본 전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내각부지방창생(創生)추진 사무국은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과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SDGs의 이념을 도입하여, ‘SDGs 미래 도시<sup>32)</sup>’, ‘지자체 SDGs 모델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문부과학성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32) 2018년부터 일본은 SDGs의 성과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 경제, 환경의 3가지 측면에서 통합적이고 우수한 대응을 보이는 지자체를 ‘SDGs미래도시’로 선정하고 있다. 2023년까지 매년 30개 도시를 선정, 총 182개 도시가 지정되었다.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일본 전체 1,788개 지자체 중 약 60%가 SDGs 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SDGs 성과 평가에서 일본은 여전히 뒤처지는 경향이 있다는 평가다.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이 매년 발표하는 Sustainable Development Score에서 일본의 순위는 점차 하락하는 추세이다. 특히 기후 위기, 생물 다양성 회복과 관련된 목표인 13, 14, 15번의 달성도가 정체되어 있어, 이는 일본 내 SDGs 노력이 세계적인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國際連合地域開發センター・『地方自治体SDGs達成度評価』編集委員会, 『2030年までの道筋:地方自治体SDGs達成度評価2023』 2023.(온라인) 국제연합지역개발센터 홈페이지 [https://uncrd.un.org/sites/uncrd.un.org/files/report\\_halfwayto2030\\_sep23ver\\_ja.pdf](https://uncrd.un.org/sites/uncrd.un.org/files/report_halfwayto2030_sep23ver_ja.pdf)(검색일: 2024. 4.1).

위한 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SDGs와 연계하여 ‘학습 환경 변혁’, ‘교육자의 능력 구축’ 등을 포함한 5가지 우선 분야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 중이다. 이러한 부처 간 협력은 SDGs의 여러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고, 서로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더불어 일본 정부는 SDGs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재팬 SDGs 어워드’를 마련하였다. 이 상은 일본 내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을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해 SDGs 추진본부가 추진하고 있다.<sup>33)</sup> SDGs 달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수상 기관은 지자체, 교육기관, 민간 기업, NGO 등 다양하다. 예를 들어, 2018년 실시한 제2회 재팬 SDGs 어워드에서는 에도시대부터 12대에 걸쳐 산부인과 출장 진료를 진행하고 있는 병원-사토(佐藤)병원-이 특별상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2023년 12월까지 총 7회 걸쳐 77개 기관이 수상하였으며, 이들의 활동 사례는 공식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내각부 및 내각관방장관 주최로 SDGs와 관련된 3개의 추가 상도 마련되어 있어 개인에서 단체에 이르기까지 SDGs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SDGs에 일본 국내 인지도 상승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실시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국민 중 89.4%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SDGs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4)</sup> 이는 해당 기관에서 2020년에 실시한 1회 조사 결과(34.5%)와 비교하여 5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응답자의 89.4% 중 58.4%는 내용 모두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고, 나머지 31.4%는 명칭만 인지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특히 공무원 및 중·고등학생들의 SDGs에 대한 인식 비율은 96%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아, 공무원의 경우 지자체의 업무가, 학생들의 경우 교육 기관에서의 활동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종합하면 일본은 SDGs의 채택 초기부터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총리를 중심으로 한 SDGs 추진본부를 설립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전략적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교육,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통해 각 분야에서 SDGs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고 있

33)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gaiko/oda/sdgs/award/index.html>(검색일: 2024.4.11).

34) WAVE·SDGs연구실은 도쿄게이지이신문사(東洋經濟新報社)와 공동으로 2020년부터 ‘SDGs에 관한 의식 조사’를 실시해왔다. 관련 자료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WAVE·SDGs연구실 홈페이지 <https://sdgs.waveld.co.jp/2022/10/12/1483/>(검색일: 2024.3.3).

다. 나아가 일본은 아시아에서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의 평화주의적 이미지를 재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IV. 일본의 SDGs 참여와 국내 요인

일본은 SDGs의 참여에 있어 국제사회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인간 안보’, ‘지속 가능한 개발’, 그리고 ‘ESD’와 같은 주요 목표들에서 나타난다. 평화정책연구소(平和政策研究所)의 정책 리포트에 따르면, SDGs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다(No one left behind)’은 1990년대부터 일본이 주장해 온 ‘인간 안보’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1998년 오부치(小淵) 총리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의 내일을 만드는 지적 대화’에서 처음 언급된 후, SDGs의 이 원칙에 반영되었다.<sup>35)</sup>

일본의 ‘지속 가능한 발전’ 이념<sup>36)</sup>은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세계 최초의 환경 회의인 ‘유엔 인간 환경 회의’ 참여로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이어서 일본은 1982년 나이로비에서 ‘유엔 환경 계획(UNEP) 관리 이사회 특별 회의’에 참여하여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의 설립을 주도하였다. 1984년 실제 설립된 WCED가 제안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기본 개념은 1987년 ‘우리의 공동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를 통해 공식화되었으며, 이 노력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리우 지구 정상 회의)로 이어졌다. 이 회의에서 ‘어젠다 21’이 채택되었고, 이는 전 세계적인 활동으로 확장되었다.

앞서 언급한 ESD는 2002년 일본이 국제사회에 처음 제안하였으며, 이후 유네스코(UNESCO)가 주도 기관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5년 SDGs의 목표 4에 포함된 이후, 2019년 11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 SDGs 실현을 위해(ESD for 2030)’가 채택되었고, 같은 해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ESD의 이니셔티브를 주도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교직원이 스스로 생각하며 서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ESD를 위한 커리큘럼 및 디자인을 추진하는 세 가지

35) 吉田綾, “SDGs 達成に向けて日本が果たす役割”, 『環境技術』 Vol.48, No.5, 2015, pp.240-244.

36) 横井篤文, “SDGsの生い立ちと国際社会における日本のイニシアチブ”, 『学術の動向』 8, 2018, pp.28-29.

단계를 제시하고,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환경성과 문부과학성이 공동으로 설립한 전국의 ESD 활동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대학, 기업, 사회교육 시설이 협력하여 지역 사회의 ESD 추진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SDGs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 분야에서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계속 선언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중요한 기여자임을 강조하며, 일본이 전 세계적인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일본은 SDGs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특히 다른 동아시아 주변국들보다도 정부 주도로 사회 전반에 걸쳐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2023년 SDGs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일본이 SDGs 달성 정도에서 21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한국이 31위, 태국이 43위, 키르기스스탄이 45위, 베트남이 55위를 기록하였다.<sup>37)</sup> 20위권 안에 모두 서구 유럽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시아 국가 중 1위라는 사실은 SDGs에 대한 일본의 정책적 자부심을 강조한다. 특히 일본은 SDGs 실시지침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 방식에는 다양한 내부적·외부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국가정체성을 어떻게 SDGs 추진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국내 요인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일본의 SDGs 참여에 대한 동기와 배경을 설명한다.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아시아주의는 열강의 협력적 제국주의에 대한 반응으로 형성되었으며, 이는 일본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일본을 아시아의 리더로 설정하고, 아시아 연대를 통한 서구의 저항을 도모하는 사상적 전략이었다.<sup>38)</sup> 이 과정에서 일본은 초국가주의적인 '신민의식'을 형성했으며, 이는 천황을 중심으로 한 독특한 인종적 정체성으로 고안되었다.<sup>39)</sup> 이러한 독특한 인종적 정체성은 전쟁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으며, 특히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리고 중일전쟁을 통해 일본의 국가적, 군사적 확장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토대로 작용하였다. 이 사상은 일본이 아시아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반영하는 동시에, 국내외적으로 일본 국민들에게 강력한 국가정체성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일본은 전후 세계 질서에 편입됨으로써 새로운 국가

37)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홈페이지 <https://dashboards.sdgindex.org/rankings>(검색일: 2023. 11.5).

38) E. H. Norman "The Genyosha: A Study in the Origins of Japanese Imperialism", Pacific Affairs, Vol. 17, No. 3, September 1944, pp.264-284.

39) 개빈 매킨 맥, 한경구 옮김, 『일본, 허울뿐인 풍요』,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8, p.235.



정체성을 모색하게 되었다. 요컨대 일본은 패전 후 냉전 시기에 ‘평화국가 일본’이라는 새로운 평화주의 정체성으로 재구성되었다.<sup>40)</sup> 이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군사적 비확장성과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로서 자신의 위치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특히 냉전이라는 시대를 배경으로 일본의 ‘평화주의’와 우경화 경향은 국내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냉전 기간 동안 ‘평화주의’는 일본을 재건하기 위해 모든 정치세력이 필요로 한 전략이었으며, 특히 우익세력에게는 천황제 유지와 반공을 보장받는 수단으로서 중요하였다.<sup>41)</sup> 이 과정에서 ‘평화주의’는 앞서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후 국제체제로의 편입 및 일본 경제 부흥 등을 목적으로 아시아 지역에 대한 ODA의 확대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후 지역 안보의 불안정과 테러 확산 같은 외부 압력은 ‘평화주의’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적극적 평화주의의 대두와 함께 평화헌법의 역할은 크게 변화하는 과정에 들어섰다.<sup>42)</sup> 이러한 변화는 1980년대 나카소네(中曾根康弘) 내각의 ‘전후 정치의 총결산’이라는 개혁 목표와 함께 더욱 심화되었다. 2000년대 이후 심화된 일본의 우경화 경향은 역사교과서의 왜곡, 야스쿠니 신사 참배, 독도 영유권 주장과 같은 행위들을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갈등을 유발하였다. 이와 같은 우경화의 단면들은 현재의 불안을 애국주의 이데올로기로 봉합하려는 ‘과거로의 회귀’라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sup>43)</sup> 요컨대 일본은 과거 아시아주의라는 이념 아래 아시아의 연대와 제국의 열망을 동시에 표출하였던 것에서, 평화주의라는 관념적인 구호 아래 세계 평화와 함께 아시아주의의 세계관을 확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SDGs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새로운 글로벌 전략으로 등장하였다. 일본 정부는 SDGs를 통해 일본의 국가정체성을 새롭게 구축하려는 시도로, 국제사회에서의 평화주의와 협력을 강조하며 일본의 이미지를 재정립하고자 하고 있다. SDGs와 관련한 총리 발언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을 엿볼 수 있다. 2016년 SDGs 추진본부 제1회 회의 당시 총리였던 아베(安倍晋三)는 「총리발언」 당시 ‘9월 유엔 총회에 앞서 일본이 SDGs의 대처에 있어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연대할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아베 총리는 G7 이세시마(伊勢志摩) 정상회의를 앞두고

40) 윤석상, “일본의 전쟁 내러티브와 국가정체성의 재생성-영화 ‘나는 조개가 되고 싶다’, ‘남자들의 야마토’, ‘망국의 이지스’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7권 제2호, 2013, p.219.

41) 서승, “현대 동아시아의 국가폭력과 일본평화주의의 회귀”, 한국사회학회 2004년도 특별 심포지움 논문집, 2004, p.53.

42) 윤석상, 2013, p.221.

43) 윤석상, 2013, p.216.

‘SDGs 추진본부’를 설립하고, 난민 캠프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중동 지역 안정화를 위한 협력, 국제보건기관에 총 11억 달러를 지원하고, 여성의 활약을 추진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G7이 개발 분야에서 국제사회에서 SDGs 실현을 선도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sup>44)</sup> 이 발언은 일본이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근대 이후 일본인 의식 속에 자리잡은 아시아주의와 함께, 전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상쇄시키기 위한 ‘평화주의’가 SDGs 정책에 투영되어 일본의 국가정체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동력은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재정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SDGs 추진을 통해 전 세계적인 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국제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SDGs 정상회의에서의 일본 총리들의 발언은 일본의 의도를 분명하게 내포하고 있다. 최근 예로, 2023년 9월 19일에 열린 SDGs 정상회의에서 현재 일본의 총리인 기시다(岸田文雄)의 연설 내용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SDGs의 원점으로 돌아가 각국의 체제와 가치관 차이를 넘어 연대해야 합니다. 나는 인간의 존엄, 이 말을 국제사회 전체의 연대를 뒷받침하는 핵심 이념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략)…… 이러한 결의 아래 다음의 세 가지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은 국제사회 전체의 노력에 계속해서 공헌하며, 국제사회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5월의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도, 일본은 의장국으로서 G7 전체의 약속 표명을 주도했습니다. 일본이 주장해 온 「인간의 안전보장」은, 바로, 「인간의 존엄」에 근거하는 SDGs 달성의 열쇠가 되는 개념입니다.<sup>45)</sup>

이 연설에는 일본이 SDGs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리더’로서의 자신의 위치성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SDGs 실시지침」에서도 강조된 것으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G7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과 함께 일본 정부가 자국의 우수성을 국내외적으로 알리는 하나의 도구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한편 SDGs의 기본적인 틀을 결정한 아베 정권의 정책 슬로건이 ‘아름다운 일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주도의 SDGs와 관련한 전방위적 정책은 이미지 재구성, 국제적 인식 개선, 그리고 국내외 정책 연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 슬로건은 전통적 가치와 현대성의 조화를 강조하면서, 세계무대에서 일본의 문화적, 경제적 소프트

44) 「G7伊勢志摩サミットに向けた我が国の貢献策」(온라인): 일본수상관저 홈페이지 <https://www.kantei.go.jp/jp/singi/sdgs/dai1/gijigaiyou.html>(검색일: 2023.11.10).

45) 「SDGサミットにおける岸田内閣総理大臣演説」(온라인)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files/10055537.pdf>(검색일: 2023.12.1).

과위를 활용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은 SDGs의 목표와 연계하여 환경 보호, 사회적 포용, 경제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평화주의적 이미지와 협력적인 국가 이미지를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이와 같이 일본은 SDGs의 추진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다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정치적 의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유도한다. 아베 정권 하에서 SDGs는 단순한 글로벌 문제 해결의 틀을 넘어, 일본의 국가정체성과 국제적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는 일본이 직면한 여러 도전과 기회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구현되었으며, ODA에 대한 접근 변화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일본은 1989년부터 약 10년간 세계 최대의 원조국으로 활약했으나, 경제 불황과 원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겹쳐 일본의 원조 정도는 냉전 종식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1년 9·11 테러 이후, 서구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원조액을 증가시키며 국제 개발원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다. 동시에 경제적으로 부상한 중국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를 확대하면서 일본은 국제 원조에서도 중국과의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JICA를 통한 ODA 확대와 같은 SDGs 달성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확립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국내외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일본의 평화주의적 이미지와 협력적 국가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이 접근 방식은 일본이 글로벌 문제에 대한 자국의 기여와 역할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SDGs 정책의 국내 정치적 상황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표 3>은 SDGs시민사회네트워크(이하, 'SDGs재팬')가 2022년 7월에 치러질 제26회 일본 참의원 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자민당은 SDGs정책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자민당의 경우 SDGs를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데는 동의하고 있지만, 다른 정당에 비해 SDGs와 관련한 선거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sup>46)</sup> 이는 일본 정부가 SDGs를 국내외 정책에 효과적으로 통

46) <표 3>을 포함한 설문조사와 관련한 자료 출처는 다음과 같다. PR TIMES 홈페이지 <https://prtimes.jp/main/html/rd/p/000000037.000027673.html>(검색일: 2023.12.1).

본 설문조사는 2022년 4월 25일 기준,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당·정치자금단체 일람」에 기재된 정당 총 9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일본유신회(日本維新の会)와 레이와신선택구미(れいわ新選組)를 제외한 7개 정당이 참여하였다.

합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실제 정치적 행동과 정책 구현에서는 여당의 적극적인 참여와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다른 정당들과의 비교에서도 자민당이 SDGs 관련 선거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은,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고,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요소로 인식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각 정당별로 참의원 선거에서 SDGs와 관련해 우선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질문에 사민당(社民黨)을 제외한 6개 정당 모두 공통적으로 ‘외교·안전보장’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SDGs재팬은 ‘6개의 정당이 ‘외교·안전보장’을 우선 분야로 언급하고 있지만, 공약에서는 ODA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이와 관련한 개념 및 중점분야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자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선진국으로서의 국제협력에서의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충하고 있다. 이는 일본 내에서도 SDGs의 실행과 국제적 역할을 놓고 정당 간에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국제사회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국내외적으로 SDGs 이행을 지향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표 3〉 SDGs 달성을 위해 각 당이 실시하고 있는 방안

회답1	당내 SDGs 조직 설치 여부	SDGs 의견교환회 실시 준비	정부의 SDGs 추진 관련 성과와 과제의 파악	국회와 위원회에서 SDGs에 관한 질문	SDGs 법안의 작성	SDGs가 당의 중점정책인지 여부
자민당	-	-	-	○	-	-
공명당	○	○	○	○	○	○
입헌민주당	○	○	○	○	○	○
일본공산당	○	○	○	○	-	○
국민민주당	○	○	○	○	○	○
사민당	○	○	○	○	○	○
NHK당	-	-	-	-	-	-

## V. 결론

이처럼 일본은 SDGs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재확인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중심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과거 일본이 추구했던 아시아주의

와 평화주의의 현대적 재해석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정체성은 일본이 SDGs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통해 자국의 긍정적인 국제 이미지를 강화하고, 동시에 국내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SDGs의 세계적 실현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근대화 시기 일본 외교정책은 정부의 현상 유지적 현실주의와 민간의 아시아주의적 현실주의가 서로 경쟁하거나 협력하면서 발전되었다.<sup>47)</sup> 반면, 현재 일본의 대외정책, 특히 SDGs를 비롯한 정책들은 정부의 현상 타파적 현실주의와 정부 주도의 신(新)아시아주의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1990년대부터 지속된 경제 불황과 중국이라는 새로운 아시아 패권국의 등장은 일본 정부에게 국가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더욱 명확히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제 사회에서의 협력과 역할을 강조하는 SDGs의 등장은 그동안 ODA 등을 통해 추진해 온 ‘인간 안보’와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주요 개념에 이니셔티브를 주도해 온 일본에게 있어, 국제 사회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더욱 강화하고 새롭게 정립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총리를 중심으로 SDGs 추진본부를 설립하였으며, 개인, 사회, 기업, 기관, 국가 각 레벨에서 SDGs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일본의 거리 곳곳에서 SDGs 관련 문구나 상징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SDGs’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2015년 이후로 신문 보도 건수는 2021년까지 계속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의 인지도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sup>48)</sup>

하지만 SDGs에 대한 인지도 증가와는 별개로 이와 관련한 부정적인 인식도 존재한다. 2022년 6월 아사히신문 디지털(朝日新聞デジタル)이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sup>49)</sup> 결과, ‘관련 기사나 방송이 늘어나고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기여를 내세우는 SDGs에 대해 어딘가 “수상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58%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그 이유로 ‘기업과 단체의 홍보 경쟁 때문’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서 ‘좋은 말만 나열되어 있어서’, ‘내용이 이해되지 않아서’, ‘실현 가능성이 낮아서’ 등의 의견이 뒤따랐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는 일본 내에서 SDGs가 단지 이미지 구축 도구로 인식되고 있음을 단편적

47) 한정선, “오만한 일본, 불안한 제국: 다이쇼 시대(1912~1926) 일본의 국가정체성 변화와 대외정책”, 『일본비평』 20, 2019. p.254.

48) 九里徳泰, “日本における SDGs の認知度に関する一考察”, 『社会起業研究』 第2巻, 2022, p.54.

49) 아사히신문 디지털(朝日新聞デジタル) 홈페이지 <https://www.asahi.com/opinion/forum/157/>(검색일: 2023. 12.1).

으로 보여준다.<sup>50)</sup> 요컨대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내실 있는 접근을 통해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일본의 SDGs 접근 방식이 국가정체성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이 일본의 정책 결정 및 국제사회에서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한 것이다. 특히, 역사적 경험과 정치·사회적 맥락이 일본의 국가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정체성이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취하는 태도와 결정에 깊이 반영되고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국내 요인만을 가지고 일본의 국가정체성이 주요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 과제로서, 국외 요인을 포함하여 일본의 국가정체성과 국제 정책 결정 간의 상호 작용을 더욱 포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각 정부의 접근 방식이 국가의 내외적 요인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 참고문헌

- 김남은, “근대 일본과 아시아주의-탈아(脫亞)와 입아(入亞)를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제44집, 2016.
- 김지현, “한일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추진체계와 상호협력방안”, 『일어일문학』 제87집, 2020.
- 미무라 미쓰히로, “동북아 SDGs 협력을 위한 일본의 과제”, 『국토』 2023년 4월호(통권 제498호), 2023.
- 서 승, “현대 동아시아의 국가폭력과 일본평화주의의 회귀”, 한국사회학회 2004년도 특별 심포지움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학술대회자료, 2004.
- 신옥희,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의미와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32집 2호, 1998.
- 정일준, “한미관계의역사사회학: 국제관계, 국가정체성, 국가프로젝트”, 『사회와역사』 제84집, 2009.
- 윤석상, “일본의 전쟁 내러티브와 국가정체성의 재생성-영화 ‘나는 조개가 되고 싶다’, ‘남자들의 야마토’, ‘망국의 이지스’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7권 제2호, 2013.
- 채수도, “근대 일본의 ‘아시아주의 운동’-일본 아시아주의의자와 「중국문제」를 중심으로”, 대구사학학회 『대구사학』 Nov 30, 2005.
- 최은미, “일본 TPP추진의 정치경제: 일본의 국가정체성과 지역구상의 관점에서”, 『동아연구』 제37권 1호, 2018.
- 한정선, “오만한 일본, 불안한 제국: 다이쇼 시대(1912~1926) 일본의 국가정체성 변화와 대외정책”, 『일본비평』 20, 2019.
- 荒木光弥, “日本のODA政策体系の過去と現在と未来”, 『国際問題』 No.637, 2014.
- 大海渡桂子, 『日本の東南アジア援助政策 日本型 ODA の形成』,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9.

50) ‘재팬SDGs어워드’와 관련하여, SDGs 추진본부의 각 회의가 매회 10~15분 동안만 개최된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小野田真二, “持続可能な開発目標(SDGs)と実施のためのマルチレベル・ガバナンス”, 『サステイナビリティ研究所収』 Volume(Issue): 第9号, 2019, pp.107-108.

- 小熊英二, 『民主と愛国一戦後日本のナショナリズムと公共性』, 新曜社, 2002.
- 小野田真二, “持続可能な開発目標(SDGs)と実施のためのマルチレベル・ガバナンス”, 『サステナビリティ研究所 収』 Volume (Issue): 第9号, 2019.
- 北波道子(2023), “日本型 ODA の歴史から アジアのインフラ建設を考える”, 関西大学経済・政治研究所, 関西大学紀要論文, 178巻
- 狭間直樹, “初期アジア主義についての史的考察(1)-序章アジア主義とはなにか”, 『東亜』 410. 2001.
- 藤井昇三, “孫文の民族主義再論—アジア主義を中心に”. 『歴史評論』 第549号, 1996.
- 星山隆, “我が国政府開発援助 (ODA) の位相 —援助の多元性と国益”, 『IIPS Policy Paper』318J, 2006.
- 九里徳泰, “日本における SDGs の認知度に関する一考察”, 『社会起業研究』 第2巻, 2022.
- 横井篤文, “SDGsの生い立ちと国際社会における日本のイニシアチブ”, 『学術の動向』 8, 2018.
- 吉田綾, “SDGs 達成に向けて日本が果たす 役割”, 『環境技術』 Vol.48No.5, 2019.
- 九里徳泰, “日本における SDGs の認知度に関する一考察”, 『社会起業研究』 第2巻, 2022.
- Anthony D. Smith, NATIONALISM -Theory, Ideology, History, Second Edition, Polity Press. 2010.
- Bukovansky, M., “Identity and Agency ni the International System.” E. Le and W. Kim, eds. Recasting International Relations Paradigms. Seoul: KAIS, 1996.
- E. H. Norman, “The Genyosha: A Study in the Origins of Japanese Imperialism,” Pacific Affairs, Vol. 17, No. 3, September 1944.
- Ernest Gellner, Nations and nationalism. Basil Blackwell, 1983.
- Noah Lewin-Epstein·Asaf Levanon, “National Identity and Xenophobia in an Ethnically Divided Society”, International Journal on Multicultural Societies (IJMS), Vol. 7, No. 2, 2005.
- Roxanne L. Doty, “Sovereignty and the Nation: Constructing the Boundaries of National Identity”, Biersteker, Thomas J. and Cynthia Weber(eds), State Sovereignty as Social Construct, Cambridge University Press,1996.
- Suny, Ronald G, “Provisional Stabilities: The Politics of Identities in Post-Soviet Eurasia.” International Security Winter 1999/2000 24(3). 2000.
-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
- 일본 수상관저 홈페이지 <https://www.kantei.go.jp>
- 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https://www.mext.go.jp>
- 국제연합지역개발센터(國際連合地域開發センター) 홈페이지 <https://uncrd.un.org>
- 아사히신문 디지털(朝日新聞デジタル) 홈페이지 <https://www.asahi.com>
-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홈페이지 <https://www.unescap.org>
- Global note 홈페이지 <https://www.globalnote.jp>
- PR TIMES 홈페이지 <https://prtimes.jp>
-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홈페이지 <https://dashboards.sdgindex.org/rankings>
- WAVE·SDGs연구실 홈페이지 <https://sdgs.waveltd.co.jp>

【 Abstract 】

## The Impact of National Identity on Japan's SDGs Policy Formulation

Kim, Mi Young

This study analyzes how national identity influences the Japanese government's policy decisions and actions in the international arena concern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t highlights the impact of Japan's historical experiences and socio-political context on the formation of national identity and examines how this is reflected in Japan's approach to the SDGs. Additionally, it identifies the key drivers behind Japan'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SDGs, aiming to understand the core motivations contributing to Japan's sustainable development.

Japan established the SDGs Promotion Headquarters in 2016 and has since encouraged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to comprehensively advance the SDGs. The 2023 SDGs report shows that Japan has a high achievement level in Asia, though challenges remain in certain goals. Japan's approach to the SDGs reflects a modern reinterpretation of past Pan-Asianism and pacifism, aiming to strengthen its central rol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Japanese government strives to reaffirm its global leadership and enhance its positive international image through the SDGs. However, there is also negative perception regarding the SDGs, indicating the need for a more substantive approach to bring about real change. Future research should include international factors to comprehensively analyze the interaction between Japan's national identity and its international policy decisions. Such analysis is crucial for understanding how both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influence each country's approach to global issues.

**Key Words** : SDGs, Japanese politics, national identity, Asianism, pacifism.

---

• 논문투고일 : 2024년 4월 30일 / 논문심사완료일 : 2024년 5월 22일 / 게재확정일 : 2024년 5월 22일